

함께 연구합시다

30

원장님들께서는 진료중 또는 진료 계획을 세우실 때 확신이 서지않는 문제에 부딪혀 보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편집진에서는 원장님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임상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 관계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함께 연구합시다”란을 마련했습니다. 이 난에는 앞으로 병의원 내의 실제 임상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라도 가장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구해 실을 예정입니다. 많은 질의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기명 또는 무기명 어느쪽도 좋으며 100-282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신성상가Apt. 504호), 대한치과의사협회지 대행기관 현대의학사 ☎277-8867·266-839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7. 치주질환의 치료시 환자의 동기 유발의 단계는 ?

치주질환 치료시 환자의 동기유발에 대한 구체적 단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68. 만성 신부전 환자의 치과치료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구강증상과 치과치료시의 일반적 주의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67. 치주질환의 치료시 환자의 동기유발의 단계는 ?

치주질환 치료시 환자의 동기유발에 대한 구체적 단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치료의 시작은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동통이 동기유발이 되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치과치료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주소를 해결해주는 일방적인 진료체계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치주질환에 있어서는 질환의 초기에는 그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통, 불안, 공포에서 환자를 해방시켜주는 의미에서의 일련의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치주질환의 경우,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단계라면 이미 병변의 상태가 마지막 단계까지 와 버린 상태이다. 나아가 환자 개개인의 생활환경, 사고방식, 특히 구강에 대한 중요성의 의미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적절한 방안이 매우 어렵다.

이상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치주 치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주치료에 임하게 하는 것, 즉 치주질환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구강내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게 될 때, 비로서 성공적인 치주 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1. 동기유발의 난점

예를 들어,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환자 개개인의 이닦는 방법은 이미 고정된 관념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른일수록 새로운 방법으로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습관이나 관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연습에 의해서만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치술질의 의미는 치주질환을 야기시키고 병의 진행을 조장시키는 치태라는 물질을 제거하여 치주질환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나아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작업중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치주질환에 대한 이해가 깊게 된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주치료에서 성공할 수 있다.

2. 동기유발의 단계

1) Ignorance : 환자는 자신의 구강내의 상태나 치주질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

2) Awareness : 대체로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가 자신의 구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고 있는 상태. 그러나 초기 또는 중증도의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환자에게 자신의 구강내가 불결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치주질환의 특징과 현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3) Interest : 자신의 구강내 현상태와 그 심각성을 느끼며 치주질환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상태.

4) Involvement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에 참여하는 단계.

5) Action : 환자 스스로가 자기손으로 확실한 치술질을 할 수 있는 단계. 이 단계에서 좀더 어려운 치태제거법을 교육시킨다(치간치솔 등의 구강위생보조기구의 사용법).

6) Habit : 환자 개개인의 치주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태제거법을 습관화시키는 단계. 또한 습관이 계속 유지되는 지를 감독해야 한다.

<해설 : 경희치대 치주과학 교실 권 영 혁>

齒協會誌 廣告下命은

代行機關 現代醫學社로

100-282 서울·중구 인현동2가 192-30
(신성상가 504호)

[277-8867/266-8398]

68. 만성 신부전 환자의 치과치료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구강증상과 치과치료시의 일반적 주의점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성 신부전(chronic renal failure)은 사구체 신염(glomerulonephritis), 신우신염(pyelonephritis), 당뇨병 신병변(diabetic nephropathy), 약물에 의한 신병변(drug-induced nephropathy), 폐쇄성 요로병(obstructive uropathy) 등으로 인한 진행성의 만성적 네프론의 파괴로 인한 신장기능의 감소상태이다.

만성신부전 환자는 다양한 전신증상 및 구강증상을 나타내는데, 카로틴류 색소의 저류로 인한 피부의 황색화 현상과 요독증으로 인한 호흡시의 암모니아 냄새가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전신적 처치는 증상감소를 위한 약물치료, 투석, 신장이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질병 진행정도에 따라 위의 치료단계를 거친다. 환자의 내과적 치료는 항고혈압제의 투여, 전해질의 균형유지, 단백질 섭취와 수분섭취의 제한, 비타민의 투여 등이다.

<구강증상 및 징후>

(1) 호흡시 암모니아 냄새; 질병 진행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 구강건조증: 만성 신부전 환자의 구강건조증은 환자의 수분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이차적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타액분비감소로 인한 치아우식가능성 증가와 같은 구강증상 감소에 주력하여야 한다.

(3) 점상출혈, 반상출혈, 치은출혈: 대부분의 환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복지치 발치와 같은 외과적 치료시에는 수술과도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4) 점막창백: 이차적인 빈혈에 의한 것으로 거의 모든 신부전 환자에 나타난다.

(5) 설염, 구내궤양: 내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요독성 구내염(uremic stomatitis)은 상당히 심각한 단계의 신부전환자에 나타난다.

(6) 캔디다증: 약물치료나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드물게 보이나 신장이식후에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환자에서 종종 볼 수 있다.

(7) 미각변화: 암모니아 냄새, 구강건조증, 설염 등으로 인한 이차적 증상이다.

(8)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드물게 보인다.

(9) 신성골이영양증(renal osteodystrophy): 심한 단계의 신부전시에 나타난다.

<치과치료시 주의점>

(1) 감염: 투석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는 동맥염의 가능성 때문에 거의 모든 치과 치료시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며,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신장이식후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감염가능성 증가 때문에 만성 치관주위염, 치근단 병소, 심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염 등과 같이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병소는 이식수술전에 치료를 요한다.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장이식 수술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간염 발생률이 높으므로 주기적인 HBsAg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약물: 신장 기능감소로 인해 tetracycline, phenacetin은 투여 금기이고 penicillin, cephalixin, aspirin, acetaminophen은 투여시 간간격을 증가시켜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clindamycin, ibuprofen, codeine, diazepam은 정상인과 같이 투여하여도 된다.

(3) 출혈경향: 혈소판의 비정상적인 응집반응과 platelet factor III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외과적 시술후 지속적 출혈이 야기될 수

◆ 함께 연구합시다 ◆

있다.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투석 치료를 시행한 당일날은 항응고제의 효과때문에 치과치료를 하지않은 것이 좋고, 투석일로 부터 오래 경과되면 환자의 전신적 상태가 나쁘게 되므로 투석 다음날에 치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4) 창상치유 지연 :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면

역억제제를 복용중인 환자에서 볼 수있다.

(5) 스트레스 감소 : 특히 신장이식 수술후 스테로이드를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설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진단과 이 승 우 교수>

新 刊 案 內

“齒醫學用語集” 改 正 版 發 刊 !

치의학 용어집 개정판(제 2집)이 발간되었다. 용어의 일원화와 개념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86년에 발행된 제 1집에 이어 속간된 이번 개정판에는 일본식의 용어들을 우리말로 대체하는등 시대에 부응하여 새로 개발된 용어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普及價 3,500원 (送料包含)

판매처 : 도서출판 현대의학사
100-282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92-30(신성 B/D 504호)
(Tel : 277-8867/266-8398)

